

[큐티 세미나] 큐티를 내 몸에 배게 하자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원태 저 / 두란노

1. 마음 잔잔히 하기 – 마음이 잔잔해야 말씀이 또렷하다.

마음이 조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채워진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바로 비치지 않고 굴절 된다. 찬송을 하면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기도하기 – 성령님께 기도하면 진리를 깨닫는다.

큐티를 하기 전에 기억 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큐티할 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라.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였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성경펴기 – 성경 한 권을 끝까지 꾸준히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 중 한 권을 선택해서 그 책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꾸준히 읽으며 묵상하라. 특히 신약의 서신서는 편지이므로 한번에 읽어야 한다. 그래야 저자가 본래 의도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4. 분량 정하기 – 분량은 짧게, 큐티는 매일

하루에 큐티할 분량을 너무 길게 잡지 말라. 한 문장, 한 단락, 한 가지 이야기만 하라. 5 ~ 10절 정도로 하면 큐티하는데 약 30분이면 충분하다. 큐티를 처음 시작했다면 시중에 나온 큐티 잡지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5. 문맥을 따라 내용 파악하기 – 문맥을 알면 원뜻이 보인다.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 뜻을 놓치고 만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다.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면 정리가 잘 된다. 이것도 훈련이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즐기게 된다. 또 기록으로 남기면 깨달은 진리를 보존할 수 있다.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말씀을 전할 때 참고할 수 있다.

7. 깨달은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기 – 적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큐티가 말씀을 이해하고 좋은 말로 적어 놓은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힘이 없다. 이해하고 기록한 말씀을 반드시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8. 나누기 – 나누면 은혜가 배가된다.

큐티한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라. 그러면 깨달은 진리가 배가 된다.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다짐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내용에서 자신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9. 중보기도 하기 –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큐티를 나누고 그냥 끝내면 안된다. 큐티를 나눈 사람들과 함께 꼭 중보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라.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원태 저 / 두란노

* 출처 : 온누리신문